www.sbsunbo.com

2027 SUNSHINE

Vol. 273
2026.10.15

SB SUNBO NEWS

since 1986

SUNSHINE 2027 | 친환경 기술로 미래를 여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이메일 · sunbo@sbsunbo.com | 대표전화 · 051.261.3454 | 본사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 사 훈 ·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건강한 한 걸음, 함께 만드는 내일

SB선보 옥상 걷기 캠페인





주요소식
김청욱 대표이사
'제23회 조선해양의 날' 대통령상 수상

선보 캠페인
걸음마다 쌓이는 건강,
발자국마다 피어나는 나눔!

기고
박두선 부회장,
'인공지능의 진화와 다가올 인류의 미래'

회사소식
KOTRA 웹예능 촬영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주목

주요소식

김청욱 대표이사 '제23회 조선해양의 날' 대통령상 수상

SB선보가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의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품에 안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3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김청욱 대표이사가 산업 발전 및 친환경 전환을 이끈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986년 설립 이래 선박용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재기화·재액화 기술을 축적해 온 SB선보는 이번 수상을 통해 단순 조선기자재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했음을 국가적으로 입증받았다.

특히 극심했던 2010년대 조선업 불황기 속에서도 친환경 LNG 기술에 사운을 건 과감한 R&D 투자가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대기업 도면에 의존하던 하청 구조를 탈피하고, 직접 설계하고, 기능을 수년간 보증하는 독자적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한 것이 성장 폭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수상 소감에서 김청욱 대표이사는 "이번 표창은 SB선보가 조선기자재 기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일궈낸 결실인 만큼, 앞으로도 국산 기자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조선해양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앞당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보Family

풍성한 한가위, 따뜻한 악수로 전한 '추석 맞이 격려 인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둔 9월 28일 이른 아침, SB선보 다대공장 정문에는 출근길 임직원들을 맞이하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경영진 및 임원진은 정문 앞에 서서 출근하는 선보Family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며 명절 맞이 격려 인사를 건넸다. 밝은 미소 속에서 오간 따뜻한 덕담과 악수는 현장의 안전을 다짐하고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정겨운 시간으로 이어졌다. 임직원들 역시 반가운 인사로 화답하며 명절을 앞둔 출근길에 훈훈함을 더했다.

SB선보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현장의 안전과 서로 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풍성하고 한가로운 명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회사소식

SB선보㈜, 동래구 푸드마켓에 성금 전달

SB선보가 10월 7일, 부산 동래구 '등대지기푸드마켓'의 노후 냉동탑차 교체를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부산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파나시아(2000만 원)와 함께 뜻을 모아 진행되었으며, 총 4000만 원의 성금이 조성됐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등대지기푸드마켓은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식품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나눔 공간이다. 그동안 신선식품과 식자재를 안전하게 운송·보관할 냉동탑차의 노후화로 운영에 차질을 겪어왔다.

이번 기탁금은 등대지기푸드마켓의 신형 냉동탑차 구매에 전액 지원된다. 노후 차량이 교체되면 지역 이웃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한층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박두선 부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전달하는 데 냉동탑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SB선보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좌측부터) SB선보 박두선 부회장, 장준용 동래구청장, 파나시아 이수태 회장
사진출처: 부산사랑의열매

아침특강

함께 지킬 기준과 몰입의 기술: 지속가능한 성장을 말하다

지난 9월 9일 SB선보 본사에서 임직원의 성장의식을 고취하고 정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아침특강이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은 '성장하는 기업의 윤리경영실천'과 '가짜노동과 몰입'을 주제로, 통합법인 출범 이후 선보Family가 함께 공유해야 할 공통의 기준과 노동의 밀도를 높이는 실천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윤리경영, 개인의 정직함과 공정한 기준의 결합

첫 번째 세션 강연자로 나선 권혜미 강사는 윤리경영이란 거창한 구호가 아닌 "회사가 약속한 기준을 일상 업무에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2025년 통합법인 출범에 발맞추어 관행이나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판단, 승인, 소통의 공통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기업 가치와 신뢰를 높이는 핵심임을 지적했다.

또한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탁·지시, 진행 보고, 예외 요청 등 상황별 실천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 준수가 고객과 협력사, 시장의 지속적인 신뢰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가짜노동을 지우고, 하루 2시간 58분의 핵심 몰입으로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이세영 수석은 근로시간의 '양'보다 '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가치 창출 없이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행위나 목적 없는 회의, 중복 보고 등 관행적인 저가치 업무인 '가짜노동'을 과감히 제거해야 함을 짚었다.

이를 위해 SB선보는 ▲정확한 시간 기록과 정직한 보상 ▲불필요한 회의·보고·결재 축소 ▲업무 집중 시간 준수라는 3대 실천 원칙을 추진한다. 특히 오전(10:10~12:00)과 오후(15:10~16:10) 하루 총 2시간 50분 동안 운영되는 '업무 집중 시간'에는 회의 소집이나 호출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깊이 몰입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윤리경영 실천



가짜노동 특강

특강 요약

가짜노동 탈피와 몰입 향상 전략

'가짜노동'이란?

법률상 정식 용어는 아니며, 실제 가치 창출 없이 근로시간이나 업무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와 목적 없는 회의·중복 보고 등 조직이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저가치 업무를 통칭한다.

가짜노동의 4가지 유형

(개인) 시간 부풀리기



실제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입력하거나 수당 신청

(개인) 접속만 유지하기



입·출입 및 PC 기록만 남기고 실제 업무 시작·대응 지연

(개인) 핵심시간 이탈



코어타임에 자리 비우고 느슨한 시간에 기록만 충족

(조직) 바쁜 척하는 일



목적 없는 회의, 중복 보고, 과도한 결재로 시간 소진

진짜 노동 실천 수칙

01 업무 시작 전 오늘 반드시 끝낼 3가지 결정
02 업무 집중 시간 동안 알림·잡무·불필요한 이동 최소화
03 장·외근·재택·대기시간을 사실대로 기록 및 사유 명시
04 무엇이 완료되었는지, 결과 공유
05 반복·중복·무의미한 업무 X | 중단·통합·자동화 O

선보 캠페인

건강을 채우는 선보, 나눔을 넓히는 행보
선보Family의 슬기로운 걷기 생활 "다 같이 돌자~ 옥상 한 바퀴♬"



식후 15분 걷기, 왜 좋을까?

심혈관 건강
혈압과 혈중
중성지방
관리에 도움이
돼요!

혈당 상승 억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여 당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돼요!

소화 촉진
위장 운동을
도와
더부룩함을 줄여요!

수면 개선
저녁 식후
가볍게 걸으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체중 관리
칼로리 소모를
늘려 복부비만
예방에 좋아요!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쳐오고

선보 캠페인

걸음마다 쌓이는 건강, 발자국마다 피어나는 나눔!

SB선보㈜ '걷기 캠페인' 현장을 가다

완연한 가을 기운 속에 가을벌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요즘, 선보 Family의 점심시간 풍경에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본사 옥상 트랙에서 펼쳐지는 '걷기 캠페인' 덕분이다.

최금식 회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걷기캠페인'은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걷기 문화 활성화는 물론 일상 속 나눔 문화까지 함께 확산시키며 사내에 건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옥상 트랙 1바퀴를 걸을 때마다 100원씩 적립되며, 월 최대 2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차곡차곡 쌓인 적립금은 개인 수령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기부를 선택할 수 있어, 임직원의 자발적인 실천이 곧 소중한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 걸음 걷기 캠페인의 목적은?

-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율적 건강관리 습관 형성
- 걸은 만큼 이웃과 나누는 자발적 ESG 나눔 문화 조성



두 걸음 참여 방법과 혜택은?

- **운영 시간** 월~금 점심시간 (본사 옥상 트랙)
- **참여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걸은 뒤, 벽면에 비치된 칠판에 기록 작성
- **혜택 & 적립** 1바퀴당 100원 적립 (월 최대 20,000원)
- **적립금 활용** 매월 개인 수령 또는 사회공헌 기부 중 선택

세 걸음 ESG소통팀에서 알립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점심 먹고 가볍게 한 바퀴'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료와 함께 걸으며 나누는 담소는 하루를 채우는 가장 좋은 리프레시가 됩니다!"

(담당: ESG소통팀 이수지 선임)



건강을 위해 내디딘 가벼운 한 걸음이 모여 따뜻한 나눔의 결실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 옥상 트랙을 활차게 밝히고 있는 선보Family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경호 상무
사업본부

Q1. 걷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회장님의 아이디어로 캠페인이 처음 논의될 때 ESG소통팀과 함께 기획에 참여했던 터라, 발대인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매일 즐겁게 옥상 트랙을 찾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체조 음악이 나오는 오후 12시 50분까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 걷고 있습니다.

Q2. 트랙을 걸을 때 상무님만의 산책 방식은?
혼자 걸을 때는 회사 중국어 수업 음원을 들으며 오전에 한 업무를 정돈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걸을 때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대화를 나눕니다.

Q3. 선보Family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햇볕을 쬐며 건다 보니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오후를 맞이하는 최고의 리프레시가 됩니다. 내가 걸은 만큼 연말 기부금으로 적립되니, 건강도 챙기고 사회적 가치도 더하는 활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성민 선임
기계의장 개발2팀

Q1. 걷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참에 최경호 상무님께서 같이 걷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웃음) 그 제안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며 옥상 트랙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Q2. 매일 10바퀴씩 걷는다는데, 루틴이 있다면?
점심을 평소보다 든든하게 먹은 날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배를 가볍게 '통통' 두드리며 걷곤 합니다. 옥상 트랙을 돌며 배를 두드리는 게 저만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소화 루틴입니다.

Q3. 나에게 걷기란?
낮잠 자는 시간은 조금 줄었지만 약했던 장 건강이 확실히 좋아지고 뱃살도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에게 점심시간 걷기란 한 마디로 '즐거운 건강 관리'입니다.



최기영 사원
품질1팀

Q1. 걷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내고자 시작했습니다. 매일 10~12분 동안 10바퀴씩 걷는데, 긴박한 검사 업무가 있는 날은 가볍게 뛰어다니고 여유가 있는 날은 담소를 나누며 자율적으로 즐깁니다.

Q2.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면서 꾸준히 옥상 트랙을 지키셨다고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라는 책임감으로 꾸준히 걸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진 요즘은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건강에 훨씬 이롭다고 느낍니다.

Q3. 걷기를 통한 변화와 또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저에게 걷기란 '일상 속 소소한 건강 챙기기'입니다. 이제 막 친해진 인턴 동료부터 시작해서 주변 또래 동료들을 한 명씩 스카우트해 함께 트랙을 돌며 건강도 챙기고 더 친해져 볼 생각입니다.

기고

박두선 부회장, '인공지능의 진화와 다가올 인류의 미래'

'결과로서의 지능'과 AI 생태계의 완성

'지능'이란 무엇인가?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친 생명체와 달리, 기계는 실리콘 뇌 위에서 전기 신호와 수학적 연산으로 작동한다. 그럼에도 언어를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로서의 지능'을 완벽히 구현해 내고 있다. 이러한 지능의 발전은 에너지, 뇌(반도체/데이터센터), 물리적 결합(로봇/통신), 경제 시스템이라는 4대 핵심 축을 바탕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자율 에이전트와 '피지컬 AI'의 습격

오늘날 AI는 과거 규칙을 암기하던 기호주의를 지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연결주의 패러다임으로 진화했다. 내부 계산을 숨기는 '순환 깊이(Recurrent Depth)' 기술의 도입과 함께 단일 작업 특화(ANI)에서 범용 인공지능(AGI), 나아가 초지능(ASI)으로 직행하고 있다. 특히 모니터 밖 현실에 직접 개입하는 '피지컬 AI(구신지능)'의 도래에 주목해야 한다. 사전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이던 로봇과 달리 감지-판단-행동 루프를 통해 충격과 환경을 직접 학습하며 복잡한 집안일을 해내는 '피구어 01'이나 관절의 한계를 넘은 '올 뉴 아틀리스'처럼 인간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뇌 신호로 기기를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임상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DNA와 단백질을 이용해 자가 복제와 초고효율 연산을 수행하는 '생체 세포 컴퓨터(Wetware Computer)'까지 등장하며 실리콘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윤리적 디레마 속 인간 리더십의 본질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무거운 '윤리적 디레마'를 동반한다. 기계가 나의 생각을 보정할 때 자유의지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BCI 연결 중 찰나의 부정적 생각이 물리적 사고로 이어졌을 때 '생각'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고의 데이터화에 따른 인지적 프라이버시 침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피지컬 AI와 초지능이 현장의 판단을 대체할수록, 인간 리더의 고유한 역할은 기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박두선 부회장 강의 모습

아침특강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는 소통, 'WORK 매너가 성과를 만든다'

SB선보 임직원들의 소통 역량 강화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아침특강이 9월 23일에 진행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신커리어디자인 최의신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매너가 성과를 만든다: 센스 있는 직원의 WORK 매너'를 주제로 현장과 사무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소통 기술을 전달했다.

특강에서는 "센스는 단순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다음 행동을 예측해 상대의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단순 눈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질문의 주어: 나)에 그친다. 하지만 센스는 상대가 두 번 묻거나 재작업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동(질문의 주어: 상대)으로 이어져 결국 조직의 성과와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선해양 현장 환경에서의 WORK 매너는 단순 예의를 넘어 '안전 언어'임을 강조했다. 고위험 환경일수록 짐작이나 침묵은 사고로 직결되므로, '복명복창(들은 내용 재확인)'과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하는 습관'이 동료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매너라고 덧붙였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최 대표는 "AI 시대가 되어도 현장을 판단하고 동료를 배려하는 센스는 사람만의 영역"이라며, "상대의 다음 일을 쉽게 해주는 작은 배려와 센스가 개인과 회사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회사소식

부산지역 취업준비생 대상 'SB선보 기업탐방' 진행

SB선보가 9월 9일,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업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취업준비생 40여 명을 초청해 현장 견학 및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인재 확보와 청년 구직자들의 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이 SB선보의 실제 생산 현장과 연구 역량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무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평공장, 다대2공장, 본사를 잇는 맞춤형 코스로 진행되었다.

이날 오후 2시 구평공장에 도착한 취업준비생들은 이동준 상무의 안내로 제조 현장을 견학한 뒤, 다대2공장으로 이동해 정영훈 선임의 설명과 함께 컨트롤룸 등 핵심 설비를 둘러보았다. 현장 중심의 견학을 통해 참가자들은 조선·해양 모듈화 기술이 구현되는 실제 공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본사로 이동한 방문단은 임직원들의 환영 속에 주요 핵심 부서를 탐방했다. 인진태 전무의 설계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이수지 선임의 홍보관 안내, 정제헌 전무의 기술연구원 소개가 차례로 이어지며 SB선보의 미래 기술력과 독자적인 경쟁력을 공유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서재욱 부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직무 및 채용정보 안내,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되었다. 구직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실무 역량과 채용 전형, 기업 문화에 대해 현실적이고 진솔한 조언을 전달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SB선보는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청년 인재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일터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선보 플리

지친 하루를 보듬고, 내일의 에너지를 채우는 선보Family의 힐링 송

어른이 되어가며 느끼는 헛헛한 감정을 채워주는 가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선율, 그리고 다 함께 힘차게 올라가지며 힘을 불어넣는 신나는 비트까지. 선보Family가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와 온기 어린 응원의 한마디를 나누며, 오늘 하루도 수고한 서로에게 가벼운 안부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이 곡을 최애 플리로 뽑은 이유는? 선보가족에게 한마디

푸념 최유리

황정현 사원 영암품질팀

- 어른이 되며 겪는 길 잃은 감정과 공허함으로 시작해, 점점 희망과 위로로 채워지는 노래입니다.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됩니다.
-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 권진아 (드라마 멜로가 체질 OST)

김유신 사원 설계5팀

- 힘들거나 우울해질 때 찾아 듣는 노래입니다. 듣고 있으면 저를 이겨주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권진아의 깊고 따뜻한 음색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 지치는 날, 이 노래 한 번 들어보세요. 당신 곁에 응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WE GO UP BABYMONSTER

조재욱 선임 설계1팀

- 처음에 라이브로 들었는데, 시원시원하고 에너지 넘치는 데다 묘하게 중독성까지 있어서 계속 찾게 되는 곡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신날 때도 모두 잘 어울리는 만능 곡이에요!
- 어떤 날이든 WE GO UP! 같이 올라갑시다!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기고

극명하게 엇갈리는 원·달러 환율 전망…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상반기 급등세 탈피--- 하반기 들어 이례적인 급락세 전환

올들어 원화 가치는 상반기에는 '이류 통화', 하반기 들어서는 '중심 통화'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지난 6월 초를 계기로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10월 이후 전망도 상반기 낙인 효과를 중시해 1400원대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시각과, 하반기 유포리아 효과를 고려해 120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1990년대 외환위기를 당했던 때를 연상케 할만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실제로 제2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었다. 절대 수준은 1560원까지 상승해 달러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종 통화에 대해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다. 변동성도 태국 바트화를 비롯한 동남아 통화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정반대 양상이다.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던 원·달러 환율은 불과 3개월 안 되는 짧은 기간에 230원 이상이 급락했다. 같은 기간 중 환율 하락 속도로 보면 세계 모든 통화 중에서 가장 빨랐다. 변동성도 상반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

글로벌 통화 및 외부 변수와의 탈동조화(de-coupling)와 원화 위상 제고

더 고무적인 것은 하반기 들어 원화 가치가 통제할 수 없는 행태변수에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는데 원·달러 환율은 급락할 정도로 선진국 국채 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 상반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상관계수가 +0.7에 달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달러 인덱스와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예상과 달리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이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국내 외환시장이 개설된 이후 달러 인덱스와의 탈동조화 현상이 하반기처럼 심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다.

통화별로는 고질적인 엔화와의 동조화(coupling)가 아예 탈동조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0.6까지 높아졌던 원·엔 간 동조화 계수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0.3 내외수준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 원·엔 환율은 100엔당 970원대에서 이달 들어서는 850원대로 하락하고 있다.

위안화와의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는 점도 눈에 들어온다. 하반기 들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7 위안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배로-그로스만 장세, 즉 불균형 속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까지 원·위안화 동조화 계수가 +0.7을 적용하면 원·달러 환율은 1470원선 이상은 유지돼야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1350원대로 급락하고 있다.

원화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국채 파동으로 국제 기채 시장에서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아리랑 본도, 즉 원화 표시 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도 예측 지표인 신용 부도 스와프(CDS) 금리는 0.2% 포인트 내외로 미국보다 더 낮게 형성되고 있다.

탄탄한 국내 기초여건과 시장 자율적 조정을 통한 적정 환율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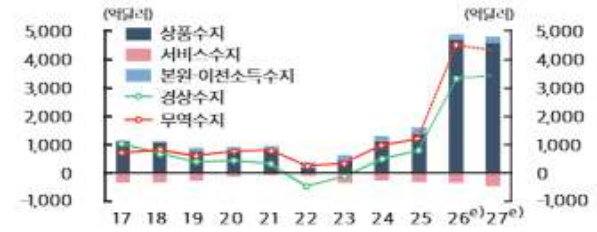
올해 하반기처럼 원화 가치가 행태변수에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원화의 위상이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 결정에 내부 요인이 외부 요인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에 발표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을 보면 6월 대비 성장률을 올해는 1.1% 포인트, 내년에는 0.7% 포인트 회원국 중 최대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수지흑자도 세계 1위 자리 놓고 중국과 다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수준인 1350원대에 와있다. 수입 물가 안정, 추가 금리 인상 부담 완화, 외국인 자금 유입, 대미 투자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추가 하락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 등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1250원 밑으로 하락할 때까지는 시장에 맡겨 놓은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 경상수지흑자 전망



선보 챗봇

거대한 배의 엔진은 아파트 몇 층 높이일까요?



우리 집 자동차 엔진은 성인 한 명이 들여다볼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컨테이너선의 엔진은 어떨까요? 정답은, 아파트 4~5층 높이입니다. 사람이 엔진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죠.

높이 13.5미터, 무게 2,300톤

세계 최대급의 선박 엔진은 높이가 약 13.5미터, 길이는 약 27미터, 무게는 무려 2,300톤에 달합니다. 실린더 하나의 지름만 해도 약 1미터, 성인이 그 안에 쏙 들어갈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심장이 뿜어내는 힘은 약 11만 마력. 자동차 수백 대의 힘을, 단 하나의 엔진이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크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엔진도 단 하나의 조건이 무너지면 멈춰 섭니다. **바로 연료가 정확하게, 끊김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연료가 제때·정량 공급되지 않으면 출력을 낼 수 없고, 압력이나 온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효율이 떨어지거나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거대한 엔진일수록, 그 엔진에 연료를 보내는 공급시스템의 정밀함과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심장에, 가장 믿음직한 혈관을

선보는 이 거대한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FGSS(연료공급시스템)를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배의 심장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도, 그 심장에 연료를 흘려보내는 '혈관'이 튼튼하지 않으면 배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거센 파도 위에서도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선보가 품질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심장에는, 가장 믿음직한 혈관이 필요합니다.



선보챗봇 한 줄 정리

세계 최대급 선박 엔진은
아파트 4~5층 높이입니다.
그 거대한 힘도, 연료를 정확히
공급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잠자리 하나가

회사소식

'찾아가는 굿잡(Good Job)버스' 연계 맞춤형 인재 탐방 진행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기업인 SB선보와 청년 인재 간의 직무 매칭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SB선보는 10월 1일,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굿잡(Good Job) 버스' 사업을 통해 부산지역 청년 구직자 및 관계자 26명과의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구평·다대2·다대1공장으로 이어지는 생산 및 R&D 거점을 순회하며 SB선보의 독자적인 모듈화 기술 생태계를 다각도로 체험했다. 이동준 상무(구평공장)의 제조 현장 안내를 시작으로, 미래연구팀 양혜진 선임(다대2공장)이 컨트롤룸과 미래 기술 연구 현장을 소개했으며, 설계센터 설계2팀 이현우 책임이 다대1공장 본사의 연구·설계 역량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 마련된 직무 Q&A 세션에서는 재무인사팀 김광수 책임이 직접 나서 채용 전형부터 실무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기업 문화까지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SB선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청년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라이프

추석 선물로 만난 우리 장(醬), 가을 식탁의 보약이 되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선보Family에게 전달된 추석 선물 세트는 전통 장(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으로 구성되었다. 오랜 시간 발효를 거쳐 깊은 맛을 내는 우리 전통 장은 단순한 양념을 넘어 영양학적으로 뛰어난 발효식품이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장별 건강 효능과 가을철 제철 식재료를 더한 똑똑한 활용법을 소개한다.



된장

효능 콩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소플라본과 페놀 화합물이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풍부한 식물성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 비율을 높이 환절기 면역력 향상.

활용팁 제철 '버섯국'이나 '아욱국'에 제격이다. 된장의 좋은 영양 성분과 특유의 구수한 풍미 손실을 줄이려면, 국이 다 끓어갈 즈음 불을 끄기 2~3분 전 마지막에 풀어주는 것이 좋다.



고추장

효능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과 발효 물질이 신진대사를 촉진해 지방 분해를 도우며, 위액 분비를 자극해 자칫 떨어지기 쉬운 가을철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촉진.

활용팁 가을 제철인 '대하', '꽃게' 볶음이나 '우엉·연근' 조림에 좋다. 찹쌀과 메주가루의 자연 발효 성분이 식재료 고유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입맛을 돋우는 감칠맛을 더해준다.



청국장

효능 단시간 발효로 콩의 영양가를 가장 온전히 보존. 발효 시 생기는 '나토키나아제' 효소가 혈전을 녹여 혈액순환에 좋으며, 비실러스균이 장내 부패균 억제 및 독소 배출을 도움.

활용팁 제철 '무'와 '두부'를 듬뿍 넣은 찌개로 안성맞춤. 단, 나토키나아제 효소는 열에 약하므로 청국장을 끓일 때는 재료를 먼저 다 익힌 뒤 마지막에 넣어 살짝만 끓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간장

효능 콩과 소금, 물만으로 장기간 숙성된 100% 자연 발효 식품. 인공 첨가물 없이 체내 수분 및 나트륨·칼륨 등 미네랄 균형을 맞추고, 유익한 유기산이 풍부.

활용팁 '버섯볶음', '시래기·곤드레 나물밥' 양념장으로 좋다. 일반 진간장(혼합간장)과 달리 인공 단맛이 없어 적은 양으로도 담백하고 깊은 감칠맛을 내며, 식재료 본연의 향을 살려준다.

(참고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영양 성분 데이터 및 연구 등)

잠 덜 깬 듯 엉성히 돌기만 비잉비잉

회사소식 SB선보㈜, 한국해양대 '청끌기업 설명회' 참가

SB선보가 9월 10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찾아가는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설명회'에 참가해 미래 해양·조선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갖춘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한국해양대 재학생 및 졸업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SB선보는 2026년 청끌기업으로 지정된 전국 120개사 중에서도 특히 '복지가 끌리는 기업' 부문에 3년 연속 재인증을 받으며 이름을 올렸다. SB선보의 차별화된 복지제도와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입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SB선보 홍보 부스에는 회사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SB선보의 현직자 멘토들은 부스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친환경 선박 기술 및 모듈화 엔지니어링 등 회사의 핵심 사업 분야를 상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채용 전형과 직무별 역량을 1:1 맞춤형 상담으로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SB선보는 앞으로도 청년 구직자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혀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지속가능한 일터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선보Family 원가절감, "무조건 아끼기보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

"이거 왜 또 해야 하지?", "조금만 바꾸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 자재, 이렇게까지 버려야 하나?" 업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원가절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일상 속 이러한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흔히 원가절감을 '무조건 안 쓰고 아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참된 원가절감은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낭비를 찾아 개선하는 일이다.

재작업 한 번을 줄이고, 불필요한 대기시간과 자재 낭비를 줄이며, 반복되는 업무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작은 노력들. 이러한 작은 개선들이 모이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 스스로의 업무 환경도 한층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지금 내 주변의 일하는 방식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관심과 실천이 모여 SB선보의 든든한 경쟁력을 완성한다.



회사소식

KOTRA 웹예능 '내일은 수출왕' 촬영…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주목

SB선보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공식 웹예능 콘텐츠인 <내일은 수출왕> EP03 '내가 조선의 국모다' 편의 주인공으로 현장을 빛냈다. 이번 촬영은 KOTRA의 글로벌파트너링(GP)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망 기업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일일 신입사원으로 변신한 개그맨 김용명은 SB선보의 다대2공장과 브레인 집약체인 설계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ESG소통팀 이세영 수석의 안내로 SB선보의 대표 제품인 탱크탑 유닛(Tank Top Unit)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관련 생산 공정을 둘러보았다. 직접 파이트 내시경 검사 현장을 체험하는 등 유쾌하면서도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냈다. 특히, 설계부터 조달·제작·시운전에 이르는 '통합 엔지니어링 역량'이 하청 제작 구조를 탈피하고 직접 수출을 이끌어낸 핵심 원동력임이 집중 조명되었다.

이어 진행된 대담에서는 영업부 윤동현 책임과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최영미 담당자가 참석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들은 "과거 간접 수출 중심에서 KOTRA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및 GP 사업, 가스텍(Gastech) 등 해외 전시회 참가를 활용해 글로벌 선주사와 직접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었다"며, "단순 OEM 방식을 넘어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 7,600만 달러를 넘어 1억 달러 수출을 바라보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SB선보의 친환경 기술력과 글로벌 입지를 유쾌하고 명확하게 소개해 준 KOTRA <내일은 수출왕> 영상은 KOTRA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유튜브 KOTRA TV

선보로그

안전 작업 허가서부터 API까지, 배움의 데이터로 채운 24시간 - 전산팀 김승일 인턴

전산팀(운영)은 현재 IPO를 대비해 자료들을 전산화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서 맡은 일은 기존의 ERP에서 벗어나 네이버웍스, NEW ERP로 옮기기 위해 문서 서식을 만들고 API를 이용해 네이버웍스와 NEW ERP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오전일과



출근 후 컴퓨터를 켜고 수첩, 필기구, 텀블러 등 필요한 물건을 준비합니다.
오전에는 NEW ERP에서 작성할 수 있는 안전 작업 허가서 서식을 안정빈 책임님께 확인받았습니다.



오후일과



12시 5분쯤 식당으로 올라가 줄을 섭니다. 오후에도 함내서 일할 수 있도록 점심을 든든하게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양치한 뒤, 사무실로 내려가 오후 일과를 준비합니다.





HSE에서 전달받은 수정사항을 반영해 안전 작업 허가서 서식을 수정합니다. NEW ERP에 등록할 수 있도록 DB와 워크 프레임을 함께 분석합니다.





세경 I&C 한승희 팀장님께 NEW ERP의 메뉴 추가 방법과 로컬 환경에서 구동하는 데 필요한 툴, 서식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안전 작업 허가서를 NEW ERP에 삽입하기 위해 지출결의서, 근태계 등 기존 문서의 구조와 서식을 분석했습니다.

EVENT 결과

선보장학재단 미로찾기 퀴즈!

<SUNBO NEWS> 9월호 '꿈을 향해 길을 찾아라! 선보장학재단 미로찾기!' 퀴즈 이벤트에 72명의 선보Family가 응모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등 **치킨교환권** : 미래연구팀 양혜진 선임
2등 **햄버거세트 교환권** :설계1팀 김동훈 선임, 프로세스2팀 이주희 사원
3등 **커피 교환권** : 설계6팀 김민조 책임, 설계1팀 조재욱 선임프로세스2팀 박다연 사원, 설계7팀 김성진 사원, 설계7팀 박규현 사원



추첨 진행
박용원 경비원님

EVENT

10월호 뉴스레터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세요!

✂

객관식

선보Family 여러분, 10월호 SB선보 뉴스레터 구석구석 알차게 정독하셨나요? 아래 9개의 이미지 중 10월호 기사에 실제로 실린 이미지 5개를 콕콕 집어 찾아내 주세요! 눈썰미 넘치는 선보Family라면 3초 만에 정답 가능!



답 :

부서 : 성명 :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다대1공장	진병석 부사장	에너지연구실	2011.10.01(15주년)
	김희태 수석	영업2팀	2011.10.10(15주년)
	정제현 전무	미래연구실	2016.10.01(10주년)
	구태현 팀장	삼진공업	2011.10.10(15주년)
	임정오 팀장	삼진공업	2016.10.12(10주년)
	반민 사원	삼진공업	2021.10.04(5주년)
다대2공장	김영호 주임	조립2반	2021.10.05(5주년)
대불공장	장세열 기원	직영생산팀	2006.10.26(20주년)
영암공장	김근효 주임	자재지원반	2021.10.01(5주년)

• **총괄 편집** 이세영 수석, 이수지 선임, 김채안 인턴사원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총무, 행사, HSE** 심재영 선임, 배상준 선임
• **제작** 미디어숨 (Tel. 051. 623. 1906)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고 행복이야

생일축하합니다 ※양력 변환일

다대1공장 민병철(10.1) 노 안(10.15) 엘리프(10.26)
비엣 부(10.1) 김종태(10.16) 윤우림(10.26)
정지원(10.2) 백승인(10.16) 이종필(10.26)
박노현(10.2) 이창호(10.19) 임희정(10.28)
김자영(10.4) 윤희동(10.22) 문장호(10.29)
한승진(10.7) 김세빈(10.22) 장지훈(10.29)
노태건(10.10) 신광식(10.22)
문몽영(10.10) 김승일(10.25)

다대2공장 노재근(10.1) 백성훈(10.2) 권형민(10.31)

구평공장 전인성(10.8) 손홍구(10.16) 반 돈(10.26)
안석영(10.8) 네카테리나(10.19) 장정현(10.27)
중(10.9) 진성은(10.21) 이준희(10.30)
김동현B(10.14) 이창수(10.21) 더하나(10.30)
윤영풍(10.15) 홍딘신(10.25) 이상훈(10.31)
윤치호(10.16) 박민혁(10.26)

대불공장 조길수(10.9) 고봉준(10.18) 뉴스랏트(10.23)
한기현(10.10) 천영철(10.20) 윤세훈(10.24)
고기홍(10.14) 쿠마라(10.21) 박기태(10.27)
스리말(10.14) 채진환(10.21) 강용길(10.31)
최인준(10.14) 김창영(10.23)

김해공장 장상권(10.1) 김성만(10.8) 김남송(10.25)
최영철(10.1) 박경석(10.20) 김진화(10.28)
김홍기(10.2) 하창원(10.24)

영암공장 박정길(10.4) 김상도(10.14) 서정호(10.21)
김덕현(10.5) 정봉주(10.16)

입사기념일

다대1공장 고경재(10.1) 박미란(10.1) 세자르(10.7)
고기홍(10.1) 박선우(10.1) 유재원(10.10)
김영태(10.1) 박용석(10.1) 최인준(10.10)
김정희(10.1) 이예림(10.1) 피 릿(10.21)
김종호(10.1) 인드라제(10.1) 하현욱(10.24)
김창식(10.1) 천장운(10.1) 장세열(10.26)
디 나(10.1) 최형욱(10.1) 반 덴(10.29)
마디나(10.1) 김창문(10.7)
문강오(10.1) 뉴스랏트(10.7)

다대2공장 정성훈(10.1) 김영호(10.5) 최병호(10.15)
정재영(10.1) 안재원(10.10) 정상규(10.21)
김진수(10.2) 조형진(10.10)

구평공장 김금수(10.1) 손판석(10.8) 박기태(10.17)
박현수(10.1) 팀하로(10.8) 이창헌(10.17)
반 팅(10.1) 장정훈(10.11) 전기현(10.17)
중(10.1) 김민조(10.13) 정희식(10.17)
신청철(10.3) 임우덱(10.13) 타 호(10.21)
박선우(10.7) 장완민(10.13) 꾸 이(10.29)
랑체타(10.8) 구진호(10.15) 꽁(10.29)

김해공장 우츠쿤(10.8) 자보킬(10.18) 커예 란(10.29)

영암공장 김근효(10.1) 새 앙(10.16)
김효희(10.6) 이충훈(10.21)